

기출문제	A형 1번	출제 영역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2022개정 중학교 연주 영역

1. 다음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에 근거하여 작성한 연주 수업 계획의 일부이다. ㉠과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야금 애플리케이션 합주하기’ 수업 계획

[중학교 1~3학년] 교육과정 내용

1.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연주)

내용 체계	범주	내용 요소
내용 체계	지식·이해	• 소리의 상호작용
	과정·기능	• ( ㉠ )을/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가치·태도	• 음악으로 협력하는 태도

성취기준	[9음01-03] 소리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 ㉠ )을/를 활용하여 함께 표현한다.
------	---

2. 교수·학습 및 평가(교수·학습 방법)

<음악> 과목의 교수·학습은 실음을 중심으로 질 높은 음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의 디지털 음악실 환경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 ㉡ ),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실감형 음악 학습 콘텐츠와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수·학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계획

1. 제재곡: 밀양아리랑

2. 활동 내용: 가야금 애플리케이션으로 2중주하기

단계	활동 내용
수업 환경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 통신망 확인하기</li> <li>• 학생 개별 태블릿 준비하기</li> <li>• 가야금 애플리케이션 세팅하기</li> </ul>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가야금 주법 연습하기</li> <li>• 가야금 애플리케이션으로 반주 연습하기</li> <li>• 가야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율 연습하기</li> </ul>
합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듬을 나누어 합주 연습하기</li> <li>•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며 합주 발표하기</li> <li>• 다른 모듬의 연주를 들으며 평가하기</li> </ul>



A형 1번	강의	음교완성반 Part I 교육과정
	내용	2주차 골든타임 10번 문제 및 첨삭

10. 다음은 2022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가)

- 연주 영역에서는 교육적·예술적·실용적 가치뿐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다양한 악곡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생활과 연계한 노래와 악기 연주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와 소통하며 연주 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감상 영역에서는 교육적·예술적·실용적 가치뿐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다양한 감상 곡을 통해 음악을 듣고 반응함으로써 음악의 다양한 특성을 알고 (㉠) 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창작 영역에서는 음악의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 자신의 느낌과 상상, 의도와 아이디어 등을 음악으로 새롭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고 음악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 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 연주 영역에서는 실기 평가, 관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온라인 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등의 활동에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골고루 반영한 역량 함양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감상 영역에서는 실습 지필 평가, 보고서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토의·토론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온라인 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음악에 관한 포괄적 이해 정도와 반응 과정, 음악에 대한 내면화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역량 함양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창작 영역에서는 실기 평가, 관찰 평가, 프로젝트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디지털 기반 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 매체 적용 창작 활동 등에 필수적인 지식·이해와 참여 과정, 주도적 소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역량 함양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악> 과목의 교수·학습은 (㉢) 을 중심으로 질 높은 음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의 디지털 음악실 환경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가상악기, (㉣) 등을 활용한 실감형 음악 학습 콘텐츠와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수·학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작성 방법>

- (가)와 (다)는 교수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와 (다)에 맞는 제목을 기호별로 각각 쓰고, 어떻게 다른지 제목과 내용을 비교하여 서술할 것.
- (나)는 다양한 ‘○○’ 방법을 영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에 알맞은 교육과정 용어를 쓸 것.
- ㉠~㉣에 알맞은 말을 기호별로 각각 쓸 것.

교육과정은 목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가 곧 제목이 되는 거고요.  
 교육과정의 큰 그림을 목차로 그리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교수학습은 크게 방향과 방법으로 제목이 구분됩니다. ㉠과 ㉡은 감정, 창의성, 자기주도성, 공동체, 소통의 다섯 가지 역량을 갖는 것을 쓰는 거고, ㉢은 음악의 교수 학습은 당연히 실음 중심으로 질 높은 음향이 구현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은 실감형 콘텐츠와 자료 중 하나이며, 교육과정에는 인공지능, 가상악기, 메타버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결국 시험은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모르는 문제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럼 그냥 둘까요?  
 합격하고 싶은 우리의 심정으로든 뭐든 생각해보고, 뭐든 적어봐야겠지요.  
 끝까지 고민해보고, 뭐라도 적어보는 건 결국 실력이 아니라, 용기의 문제입니다.

	A형 1번	강의	음교완성반 Part I 교육과정
		내용	2주차 골든타임 2번 문제 및 첨삭

2. 다음은 2022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 표는 무엇을 정리한 것인지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용한 용어 1가지로 쓰고,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은 고유한 방식과 (㉠)에 따라 인간의 느낌, 생각, 경험을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li> <li>개인적 혹은 협력적 음악 연주는 인간의 (㉡)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행위 과정으로 나타난다.</li> <li>인간은 생활 속에서 <u>다양한 음악 (㉢)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함께 경험하며 소통한다.</u></li> </ul>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은 고유한 방식과 (㉠)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청각적 형태로 구현한 것이다.</li> <li>음악적 수용과 반응은 인간의 (㉡)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li> <li>인간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미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공감한다.</li> </ul>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은 고유한 방식과 (㉠)에 따라 인간의 무한한 상상과 가능성을 탐구하여 만들어낸 것이다.</li> <li>개인적 혹은 협력적 음악 창작은 인간의 (㉡)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과정과 결과물로 나타난다.</li> <li>인간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와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음악을 구성하며 기여한다.</li> </ul>

2. 핵심 아이디어 / ㉠창작 ㉡원리 ㉢감수성 ㉣매체

영역별로 핵심 아이디어만 모은 것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총 3문장으로 구성되는데, 원리, 맥락, 활용의 순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 끝부분에서도 본 것이죠.

2022개정 교육과정의 영역은 연주, 감상, 창작이고요.

매체는 기술의 발달로, 음악교육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부분이니까 주목하도록 합니다.

기출문제	A형 2번	출제 영역	음악과 평가
		내용	2022개정 교수·학습 및 평가


2. 다음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을 바탕으로 감상 수업의 수행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나눈 중학교 음악 교사들의 대화이다. ㉠에 들어갈 평가 방법을 쓰고, ㉡의 효과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쓰시오. [2점]

교사 A :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음악 문화유산(국가유산)을 찾아서 감상한 후, 이들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 문화의 보존 및 계승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수행평가로는 어떤 평가 방법이 좋을 까요?

교사 B : ( ㉠ )을/를 활용하여 모듈별로 평가해 보시길 추천 합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학생이 학습한 내용이나 조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연계하여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학생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결론 도출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교사 A : 우리 음악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심화된 지식 습득, 모듈원 간의 의견 수렴을 통한 결론 도출과 함께, 이를 논리적으로 작성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군요.

교사 B :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평가의 방향’에 따르면, ㉡ 평가 과정에 학생을 평가의 주체로서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듈별로 진행하는 과제인 만큼, 동료의 기여도 및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호 평가나 자기 평가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형 2번	강의	음고기출반 Part I 교육과정
		내용	2주차 예상문제 9번 문제 및 첨삭

9. (가)~(다)는 2022개정 공통 교육과정 음악에 제시된 평가 방법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가)

(㉠), (㉡), 프로젝트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디지털 기반 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 매체 적용 창작 활동 등에 필수적인 지식·이해와 참여 과정, 주도적 소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 (㉤), (㉥), 토의·토론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온라인 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음악에 관한 포괄적 이해 정도와 반응 과정, 음악에 대한 내면화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한 (㉦)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 (㉨), (㉩),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온라인 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등의 활동에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골고루 반영한 (㉪)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작성 방법>

- (가)~(다)에 해당되는 내용 영역을 기호별로 각각 쓸 것.
- 내용 영역을 고려하여, ㉠~㉪에 알맞은 평가 방법을 기호별로 각각 쓸 것.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쓸 것.
- 위의 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음악 수업’과 ‘음악적 역량’에 초점을 두어 서술할 것.

9. (가)창작, (나)감상, (다)연주 영역에 해당된다. 창작과 연주 영역인 ㉠실기평가, ㉡관찰평가이다. **감상 영역인 ㉢실음지필평가, ㉣보고서 평가.** 감상과 연주 영역인 ㉤포트폴리오평가이며, 모든 영역에 공통인 ㉦은 역량 함양 평가이다.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에 환류하여 수업계획과 방법, 자료 등 음악 수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며, 학생의 음악적 역량 함양 도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당황하지 말고, 같은 기호들이 어떤 영역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상 영역은 실음지필평거나 보고서 평가가 쓰이는 거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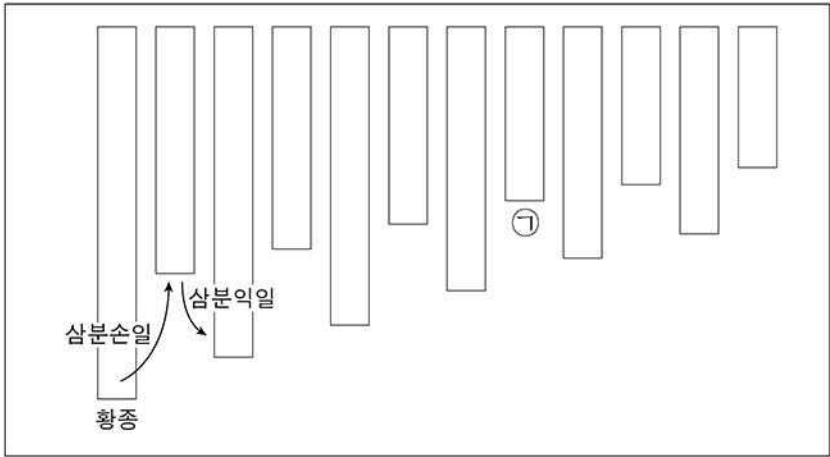
기출문제	A형 3번	출제 영역	기초이론
		내용	삼분손익법

3. (가)는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을 적용하여 12울을 산출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이고, (나)는 ‘삼분손익법’에 따른 12울 산출 순서이다. (나)를 참조하여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황종(黃鍾) 율관을 기준 삼아 (나)와 같이 삼분손익(三分損一)과 삼분익일(三分益一)을 교대로 반복하면 9개의 중성(中聲)울과 3개의 청성(淸聲)울이 산출된다. 12울의 율관을 모두 중성울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성울로 산출된 3개의 ( ㉠ )·청협중·청중려 율관의 길이를 ( ㉡ )(으)로 늘인다. 이러한 과정으로 12개의 중성울이 산출된다.

(나)



	A형 3번	강의	전공모고반
		내용	1회 모의고사 전공 A형 7번 문제 및 채점기준

7. 다음 글과 악보를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고대 그리스를 비롯한 서양 음악문화권이나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음악문화권에서는 한 옥타브를 12개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도 궁중음악과 같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진 음을 체계를 필요로 하는 음악에서는 한 옥타브를 12개로 나누고 이를 12(㉠)이라 하였다. 12(㉠)에는 두 글자의 한자(漢字)로 이루어진 (㉡)을 붙여 불렀다. 이처럼 옥타브를 12개로 나누고 12(㉡)을 붙여 부르는 음악은 고려나 조선시대의 궁중음악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풍류음악에 속하는 영산회상(靈山會上)이나 가곡(歌曲) 등에도 12(㉡)을 사용한다. 궁중음악에 쓰이던 12(㉡)을 서양의 음 이름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데, 같은 (㉡)이라도 음악의 계통에 따라 실제 음높이가 다르다.

< 작성 방법 >


- ㉠과 ㉡에 알맞은 말을 기호별로 각각 쓸 것.
- ㉡과 ㉢의 차이를 음악의 계통별 구분 3가지로 설명할 것.
- ㉡과 ㉢의 ㉡을 두 글자의 한자로 나타내고, 산출 방법을 황종(黃鍾)의 길이를 기준으로 서술할 것.

울은 음이고, 울명은 음이름입니다. ㉠과 ㉡을 구분해서 기호별로 각각 쓰라고 했으므로, <작성 방법>에 따라 울과 울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은 황종의 음고가 E $\flat$ 으로 시작하니까 향악, ㉢은 황종의 음고가 C로 시작하니까 아악이나 당악이 둘 다 나와야 합니다. <작성 방법>에서는 음악의 계통별 구분 3가지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요.

㉡은 황종보다 5도 위. 5도 위 음은 기준 길이에서 1/3을 뺀 2/3로 냅니다.

㉢은 황종보다 8도 위. 옥타브 위 음은 기준 길이에서 1/2을 뺀 1/2로 냅니다.


	A형 3번	강의	국악기본반 1주차
		내용	1주차 골든타임 4번 문제 및 첨삭

4. 다음은 삼분손익법에 대한 설명이다.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삼분손익법이란, 기준이 되는 율관의 길이를 활용하여 (㉠ )을 산출하는 음률산정법이다. 율관의 길이를 3등분 한 후 1/3을 빼는 손일을 적용하면 황종보다 높은 (㉡ )이 산출되고, 율관의 길이를 3등분 한 후 1/3을 더하는 (㉢ )을 적용하면 (㉣ )보다 낮은 (㉤ )가 산출된다. 이런 식으로 황종에서 (㉣ )이 산출되고, (㉣ )에서 (㉤ )가 산출되는 과정을 반복하면 황종 - (㉣ ) - (㉤ ) - 남려 - 고선 - 응종 - (㉣ ) - 대려 - 이척 - 협종 - 무역 - 중려가 차례대로 산출된다.

4. ㉠12율    ㉡임종    ㉢익일    ㉣태주    ㉤유빈

삼분손익법은 손일과 익일을 교대로 적용해서 12율을 산출하는 원리입니다. 즉, 율관을 1/3짧게 만들면 5도 높은 소리가 나고, 율관을 1/3 길게 만들면 4도 낮은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순서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12율명이 모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일정 길이의 1/2은 옥타브 위가 됩니다.

	A형 3번	강의	국악완성반 Part II
		내용	1주차 예상문제 5번 및 첨삭

5. 다음은 다양한 율명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해당되는 국악 용어 1가지를 기호 별로 각각 쓰시오.

(가)

大呂	夾鍾	仲呂	林鍾	南呂	應鍾
----	----	----	----	----	----

(나)

備呂	黃鍾	太簇	姑洗	林鍾
----	----	----	----	----

(다)

黃鍾	林鍾	太簇	南呂	姑洗	應鍾	蕤賓	大呂	夷則	夾鍾	無射	仲呂
----	----	----	----	----	----	----	----	----	----	----	----

5. (가)음려 또는 육려    (나) 남려계면조    (다) 삼분손익법

(가)는 6칸이네요. 6개의 율명이라면 육률 또는 육려. 12개의 율명을 6개씩 나누면 양률 또는 음려.

(나)는 5칸이네요. 5개의 율명이라면 평조나 계면조일 가능성이 높죠. 5음음계니까요.

남려를 시작으로 5음인데, 간격은 3도-2도-2도-3도니까 남려계면조.

(다)는 12칸이네요. 12율명이 다 있는데, 내가 아는 순서랑 다르죠. 그럼 이 순서대로라면 삼분손익법이 됩니다.

기출문제	A형 4번	출제 영역	서양음악사
		내용	바로크 오페라

4. 다음은 오페라의 전신에 관한 글이다. ㉠과 ㉡에 해당하는 장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오페라의 탄생은 바로크 시대에 이루어졌으나, 음악과 연극이 결합된 형태는 고대부터 존재하였다. 16세기 이탈리아에는 오페라의 탄생에 영향을 준 전원극, 마드리갈 연극(또는 마드리갈 코미디), ( ㉠ )이/가 있었다. 그중 ( ㉠ ) 장르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희극 “순례하는 여인(La Pellegrina)”에 삽입되어 있다.

또한 ( ㉡ )은/는 17세기 전반 영국에서 성행한 무대 공연물로 영국 오페라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 ㉡ )은/는 무대장치, 무용, 연극, 음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의 오페라와 비교해 보면 음악뿐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는 장르였다.



A형 4번	강좌	서양음악 완성반 Part II
	내용	1강 강의자료

초기 피렌체 오페라

- 오페라의 유래는 피렌체의 카메라타 모임에서 고대 그리스극의 재현을 시도하려는 데에서 뿐 아니라, 전원극이나 연작 마드리갈과 같은 16세기의 세속적인 극적 오락물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중 인테르메디오(intermedio)는 피렌체에서 발전한 음악과 연극이 결합된 공연 형식으로서 오페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보충자료) 오페라의 선조

- 전원극: 전원을 배경으로 목동이나 양치기 소녀 등 시골의 순박한 사람들과 신화적인 인물들로 구성되는 음악극. 전원극은 서양의 오랜 전통이었으나 특히 르네상스 시대 전원예에 대한 향수와 지상 낙원에 대한 갈망과 연결되면서 이탈리아 궁정과 아카데미에서 인기를 끌었다.
- 연작 마드리갈(마드리갈 코미디): 여러 개의 마드리갈을 모아서 장면들을 이어 하나의 극을 만드는 것.
- 인테르메디오: 연극의 막과 막 사이에 상연되는 노래와 춤이 결합된 음악공연. 완결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전원의 배경으로 하고 신화의 내용을 다루거나 본 연극의 주제와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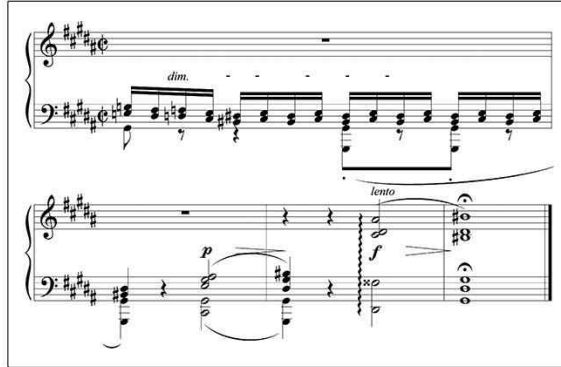
③ 영국 오페라

- 17세기 영국에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있었으므로 영국인들은 오페라라는 새로운 극예술에 흥미가 없었다. 영국 궁정은 외형상으로나마 대륙의 오페라와 유사한 마스크(masque, 가면극)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했다. 마스크는 프랑스의 궁정 발레처럼 화려한 무대장치와 무대의상 속에 춤, 독창 노래, 합창, 기악곡이 어우러져 볼거리를 제공하는 오락물이었다.
- 왕정복고 이후 영국에 프랑스 오페라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으로 연주되는 연극은 좀처럼 호응을 얻지 못했다. 대신 인기 있었던 형태는 반은 음악, 반은 연극인 세미오페라였다. 헨리 퍼셀(Henry Purcell, 1659-1695)은 세미오페라에서 많은 걸작을 남겼는데 대표작으로 <요정 여왕>(1692)과 <아서왕>, <디오클레시안> 등을 들 수 있다.

기출문제	A형 5번	출제 영역	화성
		내용	중지의 유형, 반음계적 화음

5. (가)~(다)는 쇼팽(F. Chopin)의 ‘연습곡집(Etude, Op. 25)’ 중 최종 중지들을 제시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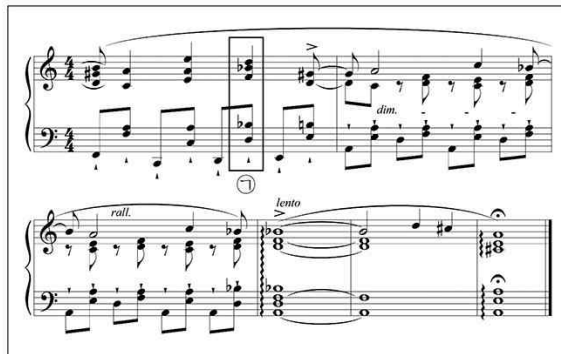
(가)



(나)



(다)



<작성 방법>

- (가)~(다) 중 중지감이 가장 강한 것을 선택하여 쓰고, 그 이유를 성부 진행의 측면에서 서술할 것.
- (다)의 중지형을 쓸 것.
- (다)에서 ㉠의 화음 기호를 쓸 것.



A형 5번	강좌	서양음악 총총반
	내용	1주 3-4쪽 연습문제 (종지형 설명과 실습)

[종지의 유형]

- 1) 정격종지 (AC)
  - ① 완전 정격종지(PAC)
  - ② 불완전 정격종지 (IAC)
    - \*이끌음 종지
- 2) 반종지(HC)
- 3) 허위종지(DC)
- 4) 변격종지(PC)

2. 제시된 (가)와 (나)에서 나타나는 종지의 유형을 쓰시오.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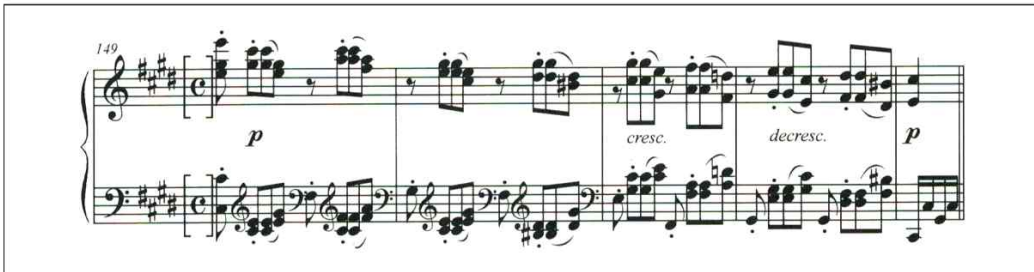
A형 5번	강좌	전공음악 모의고사반
	내용	7회 A형 문제 (나폴리6화음)

3. 다음 (가)와 (나)는 고전 시대의 작품에서 발췌한 악보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2점]

(가)



(나)




< 작성 방법 >

-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반음계적 화음을 기호로 쓸 것.
- (가) 악곡을 장3도 위로 이조(transposition)하면 무슨 조가 되는지 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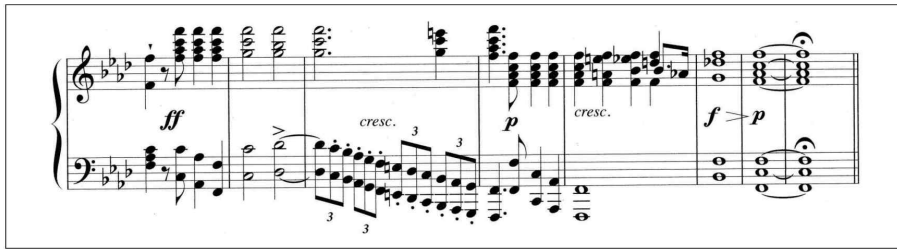
3. N6 1점  
f#단조 1점

나폴리6화음을 악보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박스로 화음을 지정해주지 않고 악보를 죽 보면서 찾게 되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만 나폴리6화음은 특징적인 음이 딱!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 음이 무엇이지요? b2이지요. 즉, (가)처럼 d단조이면 Eb이 딱 보여야 해요.

	A형 5번	강좌	전공음악 모의고사반
		내용	7회 B형 문제 (종지형)

3. 다음 (가)~(라)는 다양한 반음계적 화음을 포함하는 부분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나)~(라) 악보 생략

< 작성 방법 >

- (가)의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종지의 유형을 쓸 것.
- (나)에 □ 표시된 화음이 주로 제1전위형으로 사용되는 이유를 서술할 것.
- (다)에서 나타나는 증6화음은 (나)에서 나타나는 증6화음과 어떤 점에서 다르지 그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할 것 ((다)의 조성은 악보에 제시되어 있음).
- (라)에 □ 표시된 화음을 로마숫자 기호로 쓸 것.

3. (가)의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종지의 유형은 변격종지이다. (나)에 표시된 화음이 제1전위형으로 주로 쓰이는 이유는 이 화음이 딸림화음으로 진행하면서 베이스 성부에 어색한 증4도(또는 감5도)가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다)의 증6화음은 (나)의 증6화음처럼 V화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I화음을 수식하는 부증6화음이다. (라)에 표시된 화음은 bVI이다.

(b.c.)

- (가)의 끝에서 나타나는 종지의 유형 1점
- (나)의 □화음이 제1전위형으로 주로 사용되는 이유 1점
- (다)의 부증6화음 설명 1점
- (라)의 □화음 로마숫자 기호 1점

기출문제	A형 6번	출제 영역	정악 + 국악기
		내용	현악 영산회상 중 상령산과 중령산

6. (가)와 (나)는 변주 관계에 있는 합주곡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나)

倣	倣	林	林	淋	①
		無	無	漁	
仲	仲	仲	仲	沖	
		林	淋	淋	
橫	橫	太	太	汰	
		黃	黃	潢	
仲	仲	仲	仲	沖	·
		無	淋	淋	①
倣	倣	林	林	淋	
仲	仲	太	太	汰	
橫	橫	黃	太	潢	○
		黃	淋	潢	
倣	倣	林	林	淋	
		無	無	漁	
仲	仲	太	太	沖	·
橫	橫	黃	黃	潢	⋮
倣	倣	林	林	淋	
		仲	仲	淋	
仲	仲	黃	潢	潢	
倣	倣	林	林	淋	·

倣	倣	林	林	淋	①
		無	無	漁	
倣	倣	仲	仲	沖	
倣	倣				
倣	倣				
倣	倣		△	△	
黃	黃	仲	仲	沖	·
		太	太	汰	
仲	仲	林	林	淋	
倣	倣	無	無	漁	
倣	倣	黃	太	潢	○
		太	太	南	
仲	仲	林	林	淋	
倣	倣	仲	仲	沖	
黃	黃	潢	潢	潢	·
				汰	⋮
倣	倣	無	無	漁	
		林	林	淋	
倣	倣	林	林	淋	
倣	倣	仲	仲	沖	·

<작성 방법>

- (가)와 (나)의 공통적인 연주 형태의 명칭을 쓸 것.
- (가)의 ①을 연주할 때 소리 나는 음을 한자 율명으로 순서대로 쓸 것.
- (나)의 악곡명을 『어은보』에 기록된 명칭으로 쓰고, (가)의 선율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서술할 것. (단, 거문고의 궤를 제시할 것.)









기출문제	A형 7번	출제 영역	대위
		내용	푸가

7. (가)는 바흐(J. S. Bach)의 “평균율 Vol. I” 중 ‘푸가 제18번, BWV 863’의 시작 부분이고, (나)는 힌데미트(P. Hindemith)의 “음의 유희(Ludus Tonalis)” 중 ‘푸가 제3번’의 시작 부분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나)

<작성 방법>

- (가)에서 주제 선율이 두 번째로 제시되는 성부의 명칭을 쓸 것.
- (가)에서 ① 부분의 푸가 용어를 쓸 것.
- (가)와 (나)의 차이점을 성부 구성의 측면과 주제 응답의 조성 관계 측면에서 각각 서술할 것.



A형 7번	강좌	대위 업고 튀어! (18세기 대위 특강)
	내용	특강자료 5-6쪽 (푸가의 구성 요소)

\* 푸가의 구성요소

- 주제: 푸가의 구성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선율을 말한다. 주제는 듣는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선율로서의 충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길이로, 한 마디로 된 짧은 것에서부터 8마디 혹은 그 이상으로 된 것까지 다양하다.



▲ 바흐, WTC I, No. 5

- 응답: 한 성부에서 주제가 제시된 다음, 이 주제를 다른 성부에서 완전5도 위 혹은 완전4도 아래로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 푸가의 응답은 진정응답(real answer)과 조적응답(tonal answer)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정응답은 주제의 모든 음들을 정확하게 완전 5도로 위로 모방하는 것이다. 조적응답은 원조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한두 음 정도를 조정하여 변형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주제: 주제가 노래될 때 다른 성부에서 연주하는 선율로 주제에 대비되면서도 잘 융합되는 독자적인 선율을 말한다. 제2주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제가 나올 때마다 대응 선율로 거의 함께 등장하는 대주제에 비하여, 음악적 소재가 주제의 어떠한 요소들로부터도 비롯되지 않으며, 그 역할이 주로 화성을 보완하거나 음악적인 연결을 위한 일시적인 것이라면 자유소재(free material)로 보아야 한다.
- 추가 도입(엑스트라 엔트리): 3성 푸가에서 주제-응답-주제가 도입된 후 마치 4성 푸가처럼 주로 첫 주제가 도입되었던 성부에서 다시 응답이 도입될 때, 이 도입을 추가 도입이라고 한다.
- 연결구 또는 링크: 주제의 끝에서부터 대주제의 도입 사이, 응답의 끝에서부터 다시 원조 주제의 도입 사이를 채워주는 부분은 학자마다 링크, 브리지, 연결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 에피소드: 제시부와 미들 엔트리 사이, 미들 엔트리와 미들 엔트리 사이, 미들 엔트리와 종결부 사이 등에 놓이는 발전적 부분. 에피소드는 푸가의 부분 중 가장 자유로운 부분이며, 선율 연결, 음형적 처리, 화음 진행, 대위적 기교의 면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창작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A형 7번	강좌	서양음악 총총반
	내용	1주 13-14쪽 예제 (푸가의 구성 요소와 악곡 분석 복습)

[18세기 대위 문제 복습]

(가)

(나), (다) 푸가 악보 생략

(라)

기출문제	A형 8번	출제 영역	의식음악 + 이론
		내용	씻김굿과 별신굿

8. (가)는 씻김굿의 일부이고, (나)는 별신굿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나)

<작성 방법>

- (가) 악곡의 토리명을 쓸 것.
- (나)에 해당하는 장단명을 쓸 것.
- (가)와 (나)의 연행 목적을 각각 서술할 것.



A형 8번	강의	국악완성반 Part I
	내용	개념국악 국악개론 심화편 강의교재 118~119쪽

06-4 지역별 무악

무악은 다른 민속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특징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특히 무악의 '토리'는 무당이 부르는 무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무가권은 무가의 토리를 따라 구분한다. 육지의 경우는 서울과 경기지방, 전라도와 충청도 및 경상도 서남부지방, 경상도와 강원도의 동해안 지방, 평안도와 황해도지방의 4대 무악권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별도로 제주도를 독립된 무가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각 지방의 무가 토리는 그 지방 전문 음악인들이 부르던 통속민요의 토리와 대체로 같다. 그러나 경기남부 무악에서는 육자배기토리가 사용되지만, 경기지방의 통속민요나 향토민요에는 육자배기토리가 없어서 민요권과 무가권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되고 있다.

- 경기 무악 : 서울 경기지방의 무가는 보통 노랫가락조 또는 창부타령조라고 부르는데, 이는 민요의 경토리와 같다. 서울, 경기지방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삼현육각 편성을 사용한다. 여기에 바라, 방울, 팽과리를 추가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 피리, 대금, 해금을 쓰고, 타악기로는 징, 장구를 쓰는데 이로써 삼현육각의 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경기 도당굿, 서울 새남굿이 대표적이다.
- 남도 무악 : 전라도와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서부와 남부 지방의 무가는 육자배기토리라 하며, 더 넓게는 한강 이남의 경기도 남부 지역도 포함하는데, 이 지역을 특히 시나위 무악권이라 한다. 원래 시나위는 피리, 대금, 해금, 징, 장구 등으로 연주하는 음악이었다. 이 지역의 무악에는 피리, 해금, 대금, 아쟁 등의 선율악기와 제금, 방울, 장구, 북 등의 타악기가 쓰인다. 진도의 셋김굿이 유명하다.

제기호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1980	제주도 제주시
제72호	<u>진도 셋김굿</u>	1980	전남 진도군
제82-가호	<u>동해안 별신굿</u>	1985	부산시 기장구
제82-나호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1985	인천시 남구
제82-다호	위도 띠벳놀이	1985	전북 부안
제82-라호	남해안 별신굿	1987	경남 통영
제90호	황해도 평산 소놀이굿	1988	인천시 남구
제98호	경기 도당굿	1990	경기도 수원시
제104호	서울 새남굿	1996	서울시 강남구
제123호	법성포단오제	2012	전남 영광군

무악에 쓰이는 장단은 상당히 많은데, 동일한 장단을 지방에 따라 달리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장단은 연주자들도 명칭을 모르는 것이 있다. 이제까지 알려진 각 지방의 장단 명칭을 들면 다음과 같은데, 이러한 장단들은 아직 그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 경기 무악 : 긴염불, 반염불, 타령, 굿거리, 당악, 만수받이, 진쇠, 부정놀이, 터벌림, 발설음, 올림채, 곱마치 등
- 남도 무악 : 가래조, 도살풀이, 모리, 발버드래, 덩덕궁이, 살풀이, 시님, 중모리, 중중모리 등
- 동부 무악 : 청보, 제마수, 도장, 드렁갱이, 찌시개, 고삼, 자삼, 삼공잡이, 푸너리 등
- 서도 무악 : 염불, 타령, 굿거리 등
- 제주 무악 : 자유리듬이 많으며, 굿거리 계통이 많이 쓰이고, 삼석치기장단이 쓰인다.

기출문제	A형 9번	출제 영역	서양음악사
		내용	20세기 음악 (베베른)

9. (가)는 베베른(A. Webern)의 '교향곡 Op. 21' 중 일부이고, (나)는 이 악곡에 관한 설명이며, (다)는 쇠라(G. Seurat)의 '쿠르브부아의 다리 (Le Pont de Courbevoie)'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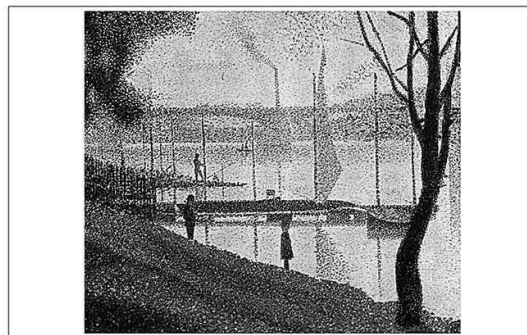
(가)



(나)

베베른의 '교향곡 Op. 21'에는 선율을 여러 악기가 나누어 연주하는 기법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선율을 ( C ) 선율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 악곡에 사용된 특징적인 작곡 기법으로, 선율에서 ( C )의 변화와 음고의 변화가 함께 지각되는 것을 가리킨다.

(다)



<작성 방법>

- (가)의 선율과 (다)의 회화 기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조를 쓰고, (가) 악보에서 이 사조의 기법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서술할 것.
- (가)의 C에 나타나는 음렬 변형 방법을 쓸 것.
- (나)의 C에 들어갈 음악 요소를 쓸 것.



A형 9번	강좌	전공음악 모의고사반
	내용	4회 B형 문제 및 채점기준

6. 다음 (가)~(다)는 제2비엔나악파의 작품에서 발췌한 악보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악보 생략

(나)

(다)

< 작성 방법 >

- (가)~(다) 중 작곡가가 다른 하나를 골라 기호를 쓸 것.
- '(가) 악곡이 포함된 오페라는 ( )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서술할 때, 빈칸에 들어갈 사조를 쓸 것.
- (나)에 제시된 기본음렬을 참고하여 □ 부분에서 사용된 음렬은 원형, 전위, 역행, 역행전위의 4가지 형태 중 무엇인지 쓸 것.
- (다)의 □에 들어갈 음은 무엇인지 영어 음이름으로 쓸 것.

12음 기법 나오면 겁먹지 말고 제시된 음렬의 음정 관계를 잘 보면 되고요. 제2비엔나악파는 언제나 중요해요. 최근 시험에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악파 이름밖에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악파 이름을 주고 시작해서 베베른과 베르크의 주요 악곡들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 베베른**


- 제2비엔나악파 중 가장 철저하게 낭만적 어법에서 벗어나 무조음악을 쓴 작곡가로 평가된다. 베베른의 작품은 매우 짧고 밀도가 있으며 완벽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 1920년대 중반까지 무조음악을 작곡했는데, 단순한 소재와 짧은 길이의 압축성이 특징적이다. 대표작으로는 현악4중주를 위한 <여섯 곡의 바가텔 Op. 9>, <5개의 관현악소곡 Op. 10> 등이 있다.
- 1920년대 중반 이후 12음 기법에 의한 작품을 발표했다. 이 시기의 베베른의 음악은 음정의 도약이 심하고 음색이 자주 변화함에 따라 음악의 흐름이 점들의 연속처럼 들리는 인상 때문에 점모주의 음악이라고 불린다. 이 때 사용된 12음 기법은 선율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음의 길이, 음색, 셈여림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으로, 1950년대 이후 총렬음악의 작곡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베베른은 또한 논리적으로 조직된 기본 음렬을 사용했다. 12음 기법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현악3중주 Op. 20>, <교향곡 Op. 21>, <아홉 악기를 위한 협주곡 Op. 24>, <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Op. 30> 등이 있다.



A형 9번	강좌	서양음악 기출반 Part IV
	내용	3주 강의자료 베베른 부분

- 교향곡 Op. 21의 1악장은 베베른이 사용한 12음 기법, 카논, 관현악법, 형식의 예를 잘 보여준다. 전체 악장은 이중 카논이다. 시작 부분을 보면 위의 두 보표는 카논 1을, 아래 두 보표는 카논 2을 이룬다. 여기서 베베른은 개별 카논을 독특한 음색과 음역에 배치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카논을 의도적으로 통합한다.
- 각 카논은 첩표로 차 있고, 음색을 빈번하게 바꾸며, 동일한 세 옥타브 음역을 오락가락 누비고 다닌다. 음색의 연쇄는 음고와 리듬만큼이나 선율의 일부이며, 각 카논의 주성부에 나타나는 악기의 변화는 다음 성부에 비슷하게 되풀이되어 나타난다. 여기서 베베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쾨헬의 음색선율(Klangfarbenmelodie)이라는 개념으로써, 선율에서 음색의 변화와 음고의 변화가 나란한 것으로 함께 지각되는 것을 가리킨다.
- 이 이중 카논은 소나타 형식으로 재해석되는데, 이것은 베베른이 고전주의 형식 원칙과 르네상스 다성음악 기법을 통합했음을 보여준다. 제시부는 대조적인 두 주제가 아니라 카논 1과 카논 2 간의 대조적 성격을 제시한다. 제시부가 그대로 한 번 반복된 후 나오는 발전부는 회문형 (palindrome)이며, 재현부에는 제시부와 동일한 음렬 연쇄가 새로운 음역에서 새로운 리듬으로 등장한다. 그 후 초기 고전주의 교향곡에서처럼 발전부와 재현부가 반복된다. 따라서 베베른은 고전주의 교향곡 1악장의 조성 구조를 12음 기법에 의해 유비적으로 재창조한다.



	A형 10번	강의	국악총총반
		내용	1주차 의식음악과 정악(악보)


사직제례악		문묘제례악		원구제례악	
영신	임종궁 2성	영신	황종궁 3성	영신	협종궁 3성
	유빈궁 2성		중려궁 2성		고선궁 1성
	응종궁 2성		남려궁 2성		남려궁 1성
	유빈궁 2성		이척궁 2성		대려궁 1성
전폐, 초헌, 철변두	응종궁	전폐, 초헌, 철변두	남려궁	전폐, 초헌, 철변두	대려궁
진찬, 공악, 아헌, 종헌	태주궁	공악, <u>아헌</u> , 종헌	<u>고선궁</u>	진찬, 아헌, 종헌	황종궁
송신	송신임종궁	송신, 망묘	송신황종궁	송신	송신험종궁
영고, 영도		노고, 노도		뇌고, 뇌도	

전고	노고	축	노도	박	집사
					루드 靡오
					△
			○		
			○		
			○		
♀	△♀				
♀	△♀				
♀	△♀				
					△

현가안(軒歌樂) 안작(樂作) 하늬 절노(節度)

전고	축	특중	박	집사
				루드 靡오
		△	△	
♀				
♀				
♀				
		△	△	

등가안(登歌樂) 안작(樂作) 하늬 절노(節度)

	A형 10번	강의	국악기출반 Part II
		내용	1주차 예상문제 3번 문제 및 첨삭

3. 다음은 12울명을 일정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①	林	南	應	●	汰	姑	■
②	■	夷	無	潢	●	浹	仲
③	應	●	浹	仲	■	夷	無

<작성 방법>

- ①~③은 모두 같은 음계에 해당될 때, ●와 ■에 알맞은 울명을 한자로 쓸 것.
- ①~③이 같은 절차에 쓰이는 제례악 1가지를 쓸 것.

①은 임종궁조 7음계입니다. ②는 유빈궁조 7음계, ③은 응종궁조 7음계.

아악이므로, 청협까지만 낼 수 있고, 그 이상은 옥타브 아래로 내려서 중성으로 연주해야 하고요. ●는 임종궁의 변치, ■는 임종궁의 변궁입니다.

	A형 10번	강의	국악기출반 Part II
		내용	1주차 예상문제 6번 문제 및 첨삭

6. <보기>는 다양한 국악기를 나열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보기>	쟁	생	금	훈	어	박	도	슬	경	지	소	화
------	---	---	---	---	---	---	---	---	---	---	---	---

<작성 방법>

- 아부(雅部) → 혁부(革部) → 막명(膜鳴)악기에 해당되는 국악기를 모두 고를 것.

쟁, 박은 아악기가 아니라, 당부악기에 속하고요. 나머지는 아악기입니다.

기명악기: 생, 훈, 지, 소, 화      현명악기: 금, 슬  
 체명악기: 어, 경                      피명악기: 도  
 생은 포부 / 금은 사부 / 훈은 토부 / 어는 목부 / 도는 혁부 / 슬은 사부 / 경은 석부 /  
 지와 소는 죽부 / 화는 포부

기출문제	A형 11번	출제 영역	음악교수법
		내용	달크로즈 솔페지와 유리드믹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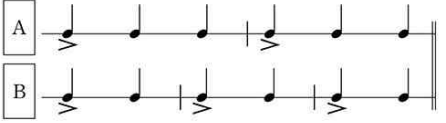
11. (가)는 자크-달크로즈(E. Jaques-Dalcroze) 교수법에 관한 설명이고, (나)는 이를 적용하기 위한 수업 계획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자크-달크로즈는 솔페지(solfège) 학습에서 듣기 능력, 특히 내청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내청 능력을 통하여 음을 마음으로 인식하고, 그 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신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자크-달크로즈는 절대 음감의 습득을 위해 고정도법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가온 다(C)' 음에서 시작하는 다장조 음계를 가장 먼저 익히도록 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는 (㉠)의 음역 안에서 장음계를 경험하고 비교하는 지도 방안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가 먼저 다장조 음계를 노래하고, 이어 F음을 F#음으로 바꾼 사장조 음계를 노래하되, '가온 다(C)' 음에서부터 노래한다. ㉡ 그다음에는 교사가 다장조 음계를 노래한 후 이어 사장조 음계를 노래하며 마지막 음은 사(G)로 끝낸다.

유리드믹스(eurhythmics)는 '좋은 리듬', '좋은 움직임'을 뜻한다. 자크-달크로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표현된 음악적 움직임과 리듬에 대한 경험을 통해 유리드믹스를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리드믹스를 적용하는 동작은 자유롭게 공간을 움직이는 이동 동작과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비이동 동작으로 나뉜다. 자크-달크로즈 교수법 학자 아브람슨(R. Abramson)은 좋은 리듬을 습득하기 위해 훈련해야 할 '리듬 요소'를 34개로 제시하였다.

(나)

단계	수업 내용	수업 자료
활동 1	• 교사의 연주에 맞춰 걸으며 ㉢와 ㉣를 각각 박수로 표현한다.	
활동 2	• 두 그룹으로 나눈 후, 교사의 연주에 맞춰 걸으며 그룹 1은 ㉢의 각 마디의 첫 박을, 그룹 2는 ㉣의 각 마디의 첫 박을 박수로 표현한다. 이후 각 그룹의 역할을 바꾸어 동일한 활동을 반복한다.	
활동 3	• 교사의 연주에 맞춰 그룹 1은 ㉢를, 그룹 2는 ㉣를 표현하되, ㉢는 비이동 동작으로, ㉣는 이동 동작으로 표현한다. 이후 각 그룹의 역할을 바꾸어 동일한 활동을 반복한다.	
활동 4	( ㉡ )	

<작성 방법>

- (가)의 ㉠에 해당하는 음역을 쓸 것. (단, ○-○(으)로 표기하되, 영어 음이름으로 쓸 것.)
- (가)의 ㉡ 활동이 의도하는 학습 내용을 쓸 것.
- (나)에서 최종적으로 습득되기를 기대하는 '리듬 요소'를 쓰고, (나)의 ㉢와 ㉣를 혼자서 동시에 표현할 때 ㉡에 들어갈 적절한 신체 활동을 1가지 서술할 것. (단,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을 반드시 포함할 것.)



A형 11번	강의	19회 희소 전국모의고사
	내용	전공B형 10번 문제 및 채점 기준

10. 다음은 에이브러햄슨(R. Abrahamson)이 달크로즈(E. Jaques-Dalcroze)가 제시한 34가지 리듬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1	시간 공간 힘 무게 균형 유동성/중력	11	지속	21	반주가 있는 단선율	31	헤미올라
2	규칙적인 박	12	분할	22	대위적 형식	32	리듬적 변화
3	빠르기	13	패턴	23	카논	33	12음 나누기
4	변화하는 빠르기	14	고유의 박	24	푸가	34	㉠
5	강약	15	악절	25	부가 리듬		
6	변화하는 강약	16	단선율 형식	26	혼합 박자		
7	악상	17	축소	27	혼합 박		
8	악센트에서 나타나는 리듬	18	확장	28	혼합 마디와 혼합 박		
9	마디에서 오는 리듬	19	리듬적 대위법	29	<u>복합 박자</u>		
10	㉡	20	싱크페이션	30	복합 리듬		

<작성 방법>

- ㉠과 ㉡에 알맞은 리듬 요소를 쓰고, 위 리듬 요소는 어떤 순서에 따라 나열되었는지 교육적 원칙을 밝힐 것.
- 제시된 리듬 요소들을 훈련할 수 있는 달크로즈 교수법의 음악 활동을 3가지로 제시할 것.
- 좋은 리듬을 뜻하는 달크로즈 교수법 1가지를 정의할 것.
- 단순한 움직임이 리드미한 움직임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4단계를 쓸 것.

10. 평가영역: 달크로즈 교수법

항목	모범답안	유사답안	점수	
			맞게 쓴 경우	
1)	㉠심 ㉡루바토 쉽고 간단한 것부터 어렵고 복잡한 순서		맞게 쓴 경우	1
			그 외	0
2)	유리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	솔페이지, 솔페지	맞게 쓴 경우	1
			그 외	0
3)	유리드믹스는 호흡에 기초한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	자연스러운 신체 움직임	맞게 쓴 경우	1
			그 외	0
4)	준비, 치기, 지속, 준비로 복귀	준비, 작동, 연속 또는 유지, 다시 준비	맞게 쓴 경우	1
			그 외	0



A형 11번	강의	음교총총반
	내용	3주차 후시나 음교

\* 달크로즈 교수 학습 개요

영역	학습 내용	학습 활동
유리드믹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듬의 34요소</li> <li>신체탐구(신체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속도)</li> <li>공간(방향, 단계)</li> <li>힘(무게, 흐름)</li> <li>시간+공간+힘</li> </ul> </li> <li>리듬적인 동작의 탐색</li> <li>비이동 동작</li> <li>이동 동작</li> <li>유동성 있는 동작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악기로서 신체 탐구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공간+힘을 표현하는 연습</li> <li>따라 하기</li> <li>반응하기(시작과 멈춤)</li> <li>메아리 모방</li> <li>연속 모방</li> <li>노래 게임, 포크 댄스, 동작을 가진 노래</li> <li>공, 다른 도구의 사용</li> <li>지휘</li> </ul> </li> <li>리듬의 34요소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순으로 연습</li> </ul>
솔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정도법</li> <li>(C-to-C scale)의 사용</li> <li>손동작(hand gesture)</li> <li>복합코드(polychord)</li> <li>2도음정(dichords)</li> <li>3도음정(trichords)</li> <li>4도음정(tetrachords)</li> <li>화성진행</li> <li>악보 읽기(2선부터)</li> <li>악보 그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음의 인식</li> <li>음높이를 신체로써 나타내는 연습</li> <li>2도음정(도-레, 레-미, 미-파.)을 이용하고 음계연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발달</li> <li>따라 하기, 빨리 반응하기, 메아리 모방, 연속 모방을 적용</li> </ul>
즉흥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 리듬 짓기</li> <li>간단한 타악기 즉흥연주</li> <li>간단한 동작 즉흥연주</li> <li>피아노로 즉흥연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단한 단어부터 문장을 리듬적으로 만들기</li> <li>간단한 즉흥적인 손동작을 만든 단어나 문장에 첨가해 보기</li> <li>점점 더 복잡한 동작으로, 예를 들면 발, 몸통, 몸 전체를 이용하여 표현해보기</li> <li>간단한 타악기를 이용하여 표현하기</li> <li>다양한 느낌들을 피아노로 연주해보기</li> </ul>



A형 11번	강의	음교기출반 Part IV
	내용	3주차 예상문제 6번 및 첨삭

6. 다음은 달크로즈 교수법에서 솔페즈를 지도하는 방법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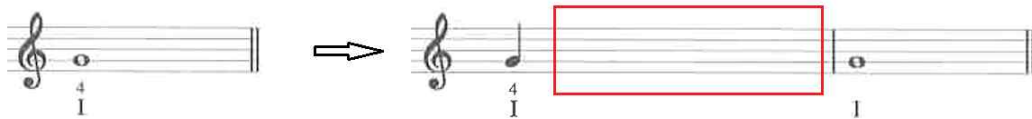
(가)



(나)



(다)



<작성 방법>

- 달크로즈가 지도하는 방법에 따라 (가)와 (나)의 악보를 완성할 것.
- (다)는 해당 음을 으뜸음으로 하여 상향 테트라코드 음계를 만들 것.

6. (가)는 다장조 음계에서 f#을 이끌어 내어, 최종적으로 G장조 음계에 친숙하게 만드는 방법의 예입니다.



기출문제	A형 12번	출제 영역	음악교육철학
		내용	리머의 현대음악교육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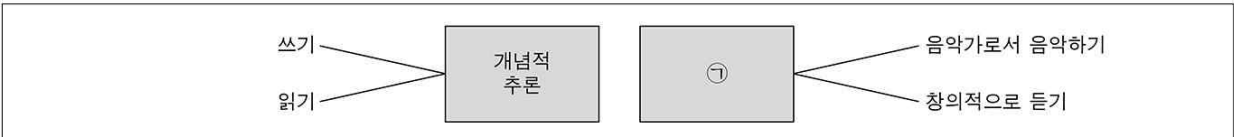
12. (가)는 리머(B. Reimer)의 음악교육 철학에 관한 설명이고, (나)는 음악 학습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리머가 제시한 그림이며, (다)는 중학교 음악 교사들의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리머는 1970년에 절대표현주의 미학 이론에 근거하여 음악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규정하는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을 제안하였다. 이후, 20세기 후반 범세계적 철학 사조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관점을 반영하여 2003년에 경험 중심 음악교육 철학을 제시하였다.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에서 음악의 의미는 '미적 지각-반응'을 통한 심미적 경험을 말한다. 리머에 의하면 심미적 경험은 인간이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이러한 경험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하였다. 그는 심미적 음악교육의 목적을 음악 작품에 내재된 (㉠)의 세계를 감지하고 그 질을 판별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주관적 세계에 대한 통찰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리머는 경험 중심 음악교육 철학에서 음악에 내재하는 미적 본질뿐 아니라, 실천적 경험, 사회 변혁적 경험, 다문화적 경험 등을 포함하는 외재적 의미도 폭넓게 수용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음악적 경험의 유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음악적 경험에는 ㉡ 그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경험 중심'이라는 새로운 철학의 용어는 바로 이 공통적인 음악의 경험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리머는 또한, 경험 중심 음악교육 철학에서 음악적 이해의 방식인 '음악적인 읽'을 4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각각의 읽이 4가지 차원(dimension, 영역)의 음악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4가지 차원은 서로 배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속에서 서로 중첩되어 경험된다.

(나)



(다)

교사 A: 선생님, 2025년부터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에 근거한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새로 나온 교과서를 보셨나요?

교사 B: 네,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가 학교에 전시되어 있어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보기에 악곡의 장르가 더 다양해졌어요. ㉢ 다른 문화권의 음악, 대중음악도 이전보다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교사 A: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해 그 문화를 이해하는 활동이 더 강화되는 느낌이네요.

교사 B: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경향은 음악교육 철학자들도 강조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 A: 맞아요. 리머가 ㉡ 심미적 음악교육 철학에서 경험 중심 음악교육 철학으로의 관점 변화를 통해 강조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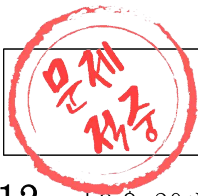
교사 B: 그러면 다양한 음악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사 A: 제 생각에는 모든 음악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음악 요소'를 바탕으로 음악을 학습한 후, 음악 양상의 차이를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사 B: 그렇군요. 음악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면서, 동시에 사회·문화 및 시대를 반영하는 산물이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계획해야겠어요.

<작성 방법>

- (가)와 (나)의 ㉠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가)에서 ㉡이 의미하는 용어를 쓸 것.
- (다)에서 ㉢에 나타나는 음악적 경험의 차원을 쓰고, ㉡에 의한 '음악의 의미' 변화를 리머의 관점에서 서술할 것.



A형 12번	강의	전공모고반
	내용	8회 모의고사 전공 A형 12번 문제 및 채점기준

12. 다음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현대음악교육철학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보기>

20세기 후반에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던 베넷 리머(B. Reimer)의 (㉠)은 20세기 말 데이비드 엘리엇(D. Elliott)의 (㉡)에 의하여 큰 도전을 받았다. 엘리엇은 1995년에 출판한 『Music Matters』와 2015년에 마리사 실버만(Marissa Silverman)과 공동으로 출판한 『Music Matters』 제2판을 통하여 (㉢)을 강조하였다. 그 철학은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를 음악교육 철학에 수용한 것으로, 음악적 행위, 음악의 특징적 맥락, 음악하기의 실천성, 음악가 및 음악교육자들의 윤리, 예술적 시민성 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가)

『The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제3판을 출판하고, 그 책에서 자신의 철학은 더 포괄적인 범주의 음악적 (㉣)에 중심을 두는 철학으로서, 음악의 내재적인 (㉤)과 지시적인 (㉥) 모두를 중시하는, 즉 극단적인 관점의 철학보다는 상호협력적인 관점을 추구하는, 시너지즘(synergism) 접근법을 취한다고 하였다. 리머는 시너지즘을 기반으로 하여, 음악적 (㉦) 중심의 음악교육 철학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음악교육 철학에 다양한 철학과 심리학의 흐름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나)

리머는 예술의 의미에 관한 인식론적 논의에서 미적 지각의 구성을 통한 감지를 배타적인 인식과정으로 본 데 비하여, (㉧) 중심 음악교육 철학에서는 지각과정을 통한 의미의 감지뿐 아니라 개념화에 의한 의미구성이라는 관점도 폭넓게 수용한다. 리머는 (㉨)음악적인 앎을 4가지로 구별하고, 2가지는 (㉩)음악적 앎의 핵심내용이며, 2가지는 음악적 지원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작성 방법 >

-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음악교육철학을 기호별로 각각 쓸 것.
- ㉢에 적절한 말을 쓰고, '특별한 ㉢'은 이전에 주장한 '심미적 ㉢'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것.
- (나)의 ㉣에 해당되는 음악적인 앎 4가지를 쓸 것.
- (나)의 ㉩에서 이 2가지 음악적 앎을 '핵심내용'이라고 본 이유를 서술할 것.

12. ㉠은 심미적 음악교육철학, ㉡은 실천주의적 음악교육철학이다. ㉢은 경험이며, 특별한 경험은 명시적인 심미적 경험에 문화권이나 개인에 따라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음악적인 앎은 음악내적 앎, 방법적 앎, 맥락적 앎, 원리 및 가치에 관한 앎이다. ㉤음악내적 앎과 방법적 앎은 음악에 대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음악적 앎의 핵심내용이다.

그러니까, 심미적 경험은 작품에 내재된 거니까 누구나 같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  
 그 깊음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을 뿐 심미적 경험은 누구나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특별한 경험은 개인마다 문화권마다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그지?  
 그래야 특별하지...

음악내적 앎, 방법적 앎이 핵심이라며. 그럼 왜 핵심인지 알아야지?

음악에 대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앎이라 그렇다네...느낌의 세계를 감지하는 것. 느낌의 세계를 감지하려면 음악과 만나야 합니다...

맥락적 앎이나 원리 및 가치에 관한 앎은 음악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거라는.

우리는 모두 다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인간인거죠.

세상에 나랑 똑같은 인간은 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하나 귀하고, 특별한 인간이에요. 파. 이. 텅!!

기출문제	B형 1번	출제 영역	기초이론
		내용	음계, 음악 용어

1. 다음은 리스트(F. Liszt)의 '헝가리 광시곡 제3번(Hungarian Rhapsody, No. 3)'의 일부이다. 악곡에 사용된 '음계의 명칭'과 ㉠ 용어의 의미를 쓰시오. [2점]

Allegretto

*pp*  
*una corda*

*ppp*

*ppp* ㉠ *perdendosi*

\* quasi cadenza

	B형 1번	강좌	서양음악 총총반
		내용	2주 8쪽 (음계)

㉠ 기타 음계

- 화성 장음계(harmonic major scale, minor-major scale)
- 장음계의 6음이 반음 내려간 변화를 받은 음계이다.
- 첫 4음은 장조적이고 뒤 4음은 단조적으로 되어있다.

D Major  
(Harmonic Major)

· 집시 음계(Hungarian minor scale)

- 화성단음계의 4음이 반음 올라간 음계이다.
- 증2도를 두 개 포함하고 있으며, 이국적인 색채를 지닌다.

a Hungarian minor

기출문제	B형 2번	출제 영역	국악사
		내용	일제강점기 활약한 인물

2. 다음은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인물명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 ㉠ )은/는 대표적인 거문고 산조 명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가야금 산조와 판소리에 쓰이는 민속 음악 어법을 응용하여 거문고 산조를 완성하였다. 충청도 강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여 거문고 산조를 연주하였다. 그는 1929년 진양-중모리-엇모리-잔모리로 구성된 거문고 산조 음반을 취입하였다. 그의 산조는 김종기와 박석기 등에게 전승되었다.
- ( ㉡ )은/는 대표적인 여류 명창 중 한 사람이다. 천부적인 목소리를 가졌던 그녀는 판소리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송만갑과 이동백의 지도를 받았다. 1920년대 초 조선물산장려회 주최 전국 명창대회에 출연하여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많은 유성기 음반을 취입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대동가극단을 조직하였다. 그녀가 부른 대표적인 대목은 “춘향가” 중 ‘사랑가’와 “심청가” 중 ‘추월만정’이다.



B형 2번	강의	국악완성반 Part IV
	내용	3주차 골든타임 45번 문제

45. 거문고산조는 ( )에 의하여 처음 시작되었는데, 박석기와 ( ), 한갑득과 김윤덕에게 전승되었고, 지금은 ( )류와 한갑득류가 널리 연주된다. 대금산조는 ( )가 처음 연주하였고, 그의 대금산조가 판소리 가락에 바탕을 둔 것인 데 비하여, 강백천의 가락은 ( ) 가락에 바탕을 둔 산조로, 이 산조는 한범수, 김동진, 김동표 등에게 전해졌다.

45. **백낙준**, 신쾌동, 신쾌동, 박종기, 시나위



B형 2번	강의	국악완성반 Part IV
	내용	개념국악 국악개론 심화편 강의교재 118~119쪽

● 근현대

- 김창조: 산조의 창시자. 가야금 산조의 명인
- 김창환, 김창룡, 송만갑, 이동백, 정정렬: 고종 때 판소리 5명창
- 이화중선, 김초향, 김추월, 신금홍, 박녹주, 김소희: 1930년대 판소리 여류 명창
- 김창조, 한숙구, 박팔괘, 한성기, 강태홍, 최옥삼, 김죽파, 성금연, 박상근, 심상건: 가야금산조 명인
- 백낙준, 김종기, 박석기, 신쾌동, 한갑득, 김윤덕: 거문고산조 명인
-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 이생강, 서용석: 대금산조 명인
- 최응래, 오진석, 이충선: 피리산조 명인
- 지용구, 지영희, 한범수: 해금산조 명인
- 한일섭, 정철호, 장월중선, 김일구: 아쟁산조 명인
- 박춘경, 조기준, 추교신: 12잡가 명창
- 박춘재, 허득선: 경서도소리 명창
- 김기수: 창작국악의 효시

기출문제	B형 3번	출제 영역	기초이론
		내용	악기, 연주기호

3. 다음은 림스키코르사코프(N. Rimsky-Korsakov)의 '스페인 기상곡 (Capriccio espagnol)' 중 제2악장을 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연주곡으로 편곡한 악보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second movement of 'Capriccio espagnol' by Rimsky-Korsakov. The score is in 3/8 time and includes parts for Flute, Oboe, Clarinet, French Horn, Bb Trumpet, Trombone, Bassoon, Violin I, Violin II, Viola, Violoncello, and Contrabass. The tempo is marked as ♩ = 80. There are several performance markings: a circled '7' above the French Horn part, a circled 'L' above the French Horn part, a circled 'C' above the Bassoon part, a circled 'E' above the Bassoon part with 'gliss.' written below it, and a circled 'D' above the Violin I part. The Bassoon part also has a 'p' dynamic marking.

<작성 방법>

- ㉗과 ㉘의 차이점을 주법의 측면에서 서술할 것.
- ㉙의 악기명을 쓰고, ㉚ 'gliss.'의 연주 방법을 서술할 것.
- ㉛ 기호의 연주 방법을 쓸 것.



B형 3번	강좌	서양음악 기본반
	내용	4주 연주매체 부분

4) 타악기

타악기는 두드리거나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한 부류는 베이스 드럼, 스네어 드럼, 탐탐, 트라이앵글이나 탬버린과 같이 일정한 음높이를 갖지 않는 악기들이고, 다른 부류는 팀파니, 실로폰, 마림바, 차임(튜블러 벨) 등과 같이 일정한 음높이를 가지는 악기들이다.

①유물타악기

팀파니

북 중에 유일하게 음정을 내는 악기로 음높이가 다른 2개 이상의 북을 1조로 사용한다.

(중략)

6) 관현악 총보 읽기





B형 4번	강의	국악기출반 Part I
	내용	개념국악 국악기출해제 part별 개정판 105~106쪽

<작성 방법>

- 장단과 노랫말의 관계에 근거하여 제시된 악곡의 특징을 서술할 것.
- 위 악곡에서 '林'을 부르는 방법을 제시할 것.
- 부분 ㉠에 들어갈 음을 시김새를 제외한 율명으로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

[ 2021 ]



정악 - 시조

사설시조/자재성/종지형



시조는 5박과 8박으로 된 장단을 사용하고, 장별로 장단이 정해져 있다. 제시된 악보는 시조의 장단을 그대로 맞추고 있으나, 가사는 3장 6구 45자 내외인 평시조에 비해 매우 많은 사설시조이다. 시조는 黃, 仲, 林 3음으로 구성되는데, 林은 원래 음정보다 약간 낮게 부르는 자재성이다. ㉠에 들어갈 음은 黃鍾이다. 시조는 4도 하행 종지형이므로, 仲呂에서 4도를 하행하면 黃鍾이 되기 때문이다.



시조는 시조시를 가사로 사용하며, 초장, 중장, 종장 3장 구성이다. 음악의 구조는 동일하며, 가사가 많아질 경우, 선율은 그대로 두고 가사를 촘촘하게 붙여서 부른다. 출제된 악보는 3장 6구 45자 내외인 평시조에 비해 가사가 매우 많은 사설시조이다. 많아진 사설은 촘촘하게 엮어서 부르게 되며, 이러한 형식을 엮음형식이라고도 한다. 시조는 황, 중, 임으로 구성된 3음 계면조 중심이며, 황종은 떨고, 중려는 평으로 내고, 임종은 원래 음정보다 약간 낮게 내는 자재성으로 부른다. 종지는 4도 아래로 하행에서 마치는 유형에 해당된다.

\*시조

시조(時調)는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라는 뜻으로, 고려 말기부터 발달하여 온 우리 고유의 정형시이다. 시조라는 명칭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신광수의 『석북집(石北集)』이고, 최초의 시조 악보는 서유구의 『유예지(遊藝志)』와 이규경의 『구라철사금자보(歐羅鐵絲琴字譜)』이다. 경제 평시조 하나였던 시조창은 각 지방으로 널리 퍼지면서 서울 지방 경제, 지방의 향제로 구분하는데, 향제는 전라도 지방 완제, 충청도 지방 내포제, 경상도 지방 영제로 구분한다. 시조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시조는 음악의 형태에 따라 '평시조'·'중허리시조'·'지름시조'·'사설지름시조'·'수잡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평시조'는 중간 음역의 음으로 시작하고, '중허리시조'는 초장 셋째 장단의 첫 박을 높은음으로 드러내며, '지름시조'는 고음역으로 시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곡의 '평거'·'중거'·'두거'에 비유하기도 한다. 시조는 일반적으로 장구 하나로 반주하거나 여기에 한 두 가지의 선율 악기를 추가하는데, 장구 반주를 갖추지 못하면 무릎장단으로도 노래할 수 있다. 초장·중장·종장의 3장 형식이며, 장단은 3점 5박과 5점 8박의 두 가지를 한 곡 안에서 반드시 번갈아 친다.

장단은 지방마다 치는 방법이 다른데, 경제는 초·중장을 5·8·8·5·8, 종장을 5·8·5·8박으로 진행하고, 향제는 초, 중장을 5·8·8·8, 종장을 5·8·8박으로 진행한다. 음계는 황·중·임의 3음 음계 계면조이지만, 임종은 자재성(自在性)이라고 하여 실제보다 조금 낮게 소리를 낸다.

기출문제	B형 5번	출제 영역	화성
		내용	비화성음, 화음의 전위형과 성부 진행, 화음 기호

5. 다음은 하이든(J. Haydn)의 '교향곡 제102번' 제1악장의 일부를 변형한 악보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Haydn's Symphony No. 102, Part 1. The score is in 4/4 time and B-flat major. It features a full orchestra including Flute, Oboe, Bassoon, Horn, Trumpet, Violin I & II, Viola, and Cello.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is marked with a circled 1 (㉠) and the second system with a circled 2 (㉡). Various annotations are present: circled 1 (㉠) above the first measure of the Flute part, circled 2 (㉡) above the final measure of the Flute part, circled L (㉢) and circled C (㉣) below the Cello part in the second system, and circled a2 (㉤) above the Bassoon part in the first system.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such as sf and f.

<작성 방법>

- ㉠에 사용된 비화성음을 쓸 것.
- ㉢과 ㉣의 공통된 화음의 전위형을 쓰고, 그 전위형이 사용된 이유를 성부 진행의 측면에서 서술할 것.
- ㉡에 해당하는 화음 기호를 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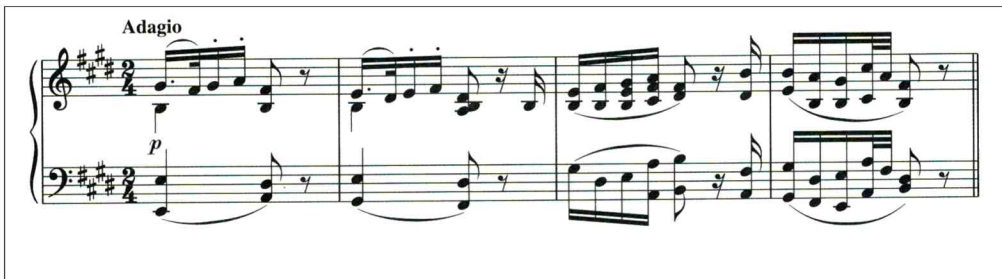
B형 5번	강좌	전공음악 모의고사반
	내용	8회 A형 문제 (비화성음)

3. 다음 (가)는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중 한 곡에서, (나)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중 한 곡에서 발췌한 악보이다. (가)에서는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비화성음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2점]

(가)



(나)



3. 선행음, 전타음 각 1점씩 2점

(가)에서는 이탈음, 선행음, 전타음이 나타나고 (나)에서는는 보조음, 이탈음이 나타나지요. 따라서 (가)에는 있지만 (나)에서 없는 것은 선행음과 전타음이고요. 같은 비화성음 문제라도 이렇게 약간 돌려서 물어보면 좀 까다롭게 되지요. 문제를 잘 읽어야 하고요. 우리 모고 때 종류별로 다 연습했으니까 비화성음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گی!



B형 5번	강좌	화성대위 완성반 Part I
	내용	4주 강의자료 (베이스가 상행할 때의 성부 진행 특징)

③ 선적인 5-6 기법 (상행 5-6 진행)

- 3화음의 5음이 6도음으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 연속되는 기본위치 3화음 진행에서 야기될 수 있는 병진행5도를 방지한다.

(a)

C: I vi<sup>6</sup> ii vii<sup>06</sup> iii I<sup>6</sup> IV ii<sup>6</sup> V iii<sup>6</sup> vi IV<sup>6</sup>  
 대안: I [5 - 6] ii [5 - 6] iii [5 - 6] IV [5 - 6] V [5 - 6] vi [5 - 6]

(b)

병행5도      병행5도      병행5도      병행5도      병행5도

C: I                  ii                  iii                  IV                  V                  vi

(a) 3성부

5 - 6    5 - 6    5 - 6    5 - 6    5 - 6    5 - 6    5 - 6

I          II          III          IV          I<sup>6</sup>          V<sub>7</sub>          I

(b) 4성부

(중략)

- 또한 반음계적 경과음이 추가되면서 긴박감을 더해주기도 한다.

5 - 6    5 - 6    5 - 6    5 - 6    5 - 6    5 - 6    5 - 6    5 - 6

기출문제	B형 6번	출제 영역	민속악
		내용	판소리 춘향가와 송만재 관우희

6. 다음은 장원급제 축하연과 관련된 음악 자료이다. (가)는 “춘향가” 중 한 대목이고, (나)는 ‘관우희(觀優戲)’의 내용 구성과 수록된 작품 중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세- 상에 좋은- 것이 과거 밖에- 또있나 머 리위 에어 사화  
 몸 에난 금포 로다 금 의화등을앞세 우고 정안-대 도--상에  
 부르나니-신 원이요 따 르 나니 실래라 부 모님전에 영화뵈고

(나)

제 1 수부터 제8수까지는 ‘영산(靈山)’  
 제 9 수부터 제20수까지는 ㉠ ‘타령(打令)’  
 제21수부터 제35수까지는 ‘궁희(絃戲)’  
 제36수부터 제42수까지는 ‘장기(場技)’  
 제43수부터 제50수까지는 ‘총론(總論)’

3수

花下空庭繾似海 꽃이 떨어지는 빈 뜰은 바다처럼 넘쳐 흐르고  
 一聲腰鼓立春風 요고소리 한번 나니 봄바람이 일어나네  
 調喉弄起靈山相 영산상을 불러 목을 고르니  
 鎮國名山萬丈峰 ㉡ 진국명산만장봉이네

—<작성 방법>—

- (가)의 장단명을 쓸 것.
- (나)의 ㉠과 동일한 노랫말을 사용하는 가곡이 실린 19세기 후반 가집(歌集)명을 쓸 것. (단, ‘3대 가집’에 한정하여 쓸 것.)
- (나)의 ‘관우희’에서 신재효(申在孝)의 사설집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그 사설집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변화된 과정을 악곡 수를 근거로 각각 서술할 것.



B형 6번	강의	국악완성반 Part III
	내용	1주차 골든타임 8번 문제

8. 다음은 판소리와 관련된 문헌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가)

조선 순조 때 그의 아들의 등과(登科)를 축하하기 위해서 지은 한문시이다. 당시의 풍속은 등과를 하면 창우(倡優)를 불러 각종 연희를 벌이며 축하하였는데, 그는 그렇게 못하는 서운한 마음을 달래면서, 당시 재인(才人)의 우희(優戲)를 자세히 묘사한 이 시로 대신하였다. 8백여 자의 서문과 50수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

제1수부터 제8수까지는 광대(廣大)가 소리하기 전에 다스름, 즉 현행의 단가(短歌)에 해당하는 영산을 부르고 구경꾼들이 조용히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제9수부터 제20수까지는 「춘향가」「적벽가」(㉠ ) 「강릉매화타령」「가루지기타령」(일명 변강쇠타령) 「알자타령(曰者打令)」「심청가」「배비장전」「옹고집전」「가짜신선타령」「별주부전」(일명 토끼타령) 「장끼전」 등의 열두마당을 노래한 내용이다.**

제21수부터 제25수까지는 아니리를 섞어 가며 판소리를 하는 (㉡ )의 소리하는 모습과 그 소리를 듣고 울었다 웃었다 하는 구경꾼들을 그렸다. 제26수부터 제35수까지는 줄 타는 (㉢ )가 줄 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줄타기 재주를 그린 것이고, 제36수부터 제42수까지는 땅 재주를 그렸다. 제43수부터 제50수까지는 당시 (㉣ )의 습속을 그린 것으로, (㉤ )가 고사도 지내고, 농어촌으로 다니면서 대중을 상대로 소리를 했으며, 또한 등과한 사람에게 불리기 위하여 유식한 사람을 상대로 소리를 경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표지도 허름한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문헌에는 ㉞신위(申緯)의 「소악부」가 수록되어 있다. 이 시는 판소리 열두마당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당시 재인들의 여러 활동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판소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

- (가)의 지은이와 문헌명을 쓰고, (나)의 문헌명을 쓸 것.
- ㉠에 해당하는 판소리 5마당을 쓰고, ㉡에 알맞은 명칭을 쓸 것.
- ㉢이 지은 판소리 관련 문헌 1가지를 쓰고, ㉣에 알맞은 인물을 쓸 것.
- 판소리와 관련된 사설을 판소리 구성 요소 중 ㉤가지로 구분할 것.

8. (가)는 송만재가 지은 『관우희』이고, (나)는 『오가전집』이다. ㉠은 판소리 5마당 중 흥보가이며, ㉡은 광대이다. 신위가 지은 판소리 문헌은 『관극시』가 있으며, ㉣은 이선유이다. 판소리와 관련된 사설은 아니리 부분과 소리 부분으로 구분된다.

어우....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작성 방법>을 한 10번 이상은 수정했어요.



B형 6번	강의	국악기출반 Part III
	내용	3주차 예상문제 8번 문제 및 첨삭

8. 다음은 저자와 저서, 저서의 특징을 나열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 ㉠ 관우희(觀優戲)
- ㉡ 악학궤범(樂學軌範)
- ㉢ 대악후보(大樂後譜)
- ㉣ 석북집(石北集)
- ㉤ 만화집(晩華集)

- ① 신광수(申光洙, 1712~1775)
- ② 유진한(柳振漢, 1711~1791)
- ③ 송만재(宋晩載, 1788~1851)
- ④ 서명응(徐命膺, 1716~1787)
- ⑤ 신재효(申在孝, 1812~1884)

- ㉠ 가사 춘향가 이백구((歌詞 春香歌 二百句)
- ㉡ 시조에 장단을 배열한 것은 장안에서 온 유우춘(柳遇春)에서 비롯한다.
- ㉢ 춘향가, 심청가, 토별가, 박타령, 적벽가
- ㉣ 영조 35년에 세조 때의 음악을 편집한 7권 7책의 필사본 악보
- ㉤ 판소리 열 마당, 광대와 관객, 줄타기, 땅재주, 광대의 습성 등 50수

<작성 방법>

- ㉠~㉤에 해당되는 인물을 기호별로 각각 쓰고, ①~④에 해당되는 저서를 번호별로 각각 쓸 것.
- ㉠~㉤중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고, ①~⑤와 ㉠~㉤를 하나씩 연결할 것.
- ㉤에서 밑줄 친 2가지를 남사당놀이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쓸 것.

8. ㉠~㉤은 ㉠송만재, ㉡성현, ㉢서명응, ㉣신광수, ㉤유진한이다. ①~④는 ①석북집, ②만화집, ③관우희, ④대악후보이다. ㉠~㉤ 중에서 ㉡는 유우춘을 이세춘으로 고쳐야 하며, ㉢은 변강쇠가를 추가하고, ㉤는 판소리 열 마당이 아니라, 판소리 열 두 마당으로 고쳐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과 연결된다. 줄타기는 어름, 땅재주는 살판이라고 한다.

암기가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문헌에 대한 보충설명은 아래 링크 참조.

- ㉠ 유진한 만화집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7777>
- ㉡ 신광수 석북집 관서악부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4892>
- ㉢ 신재효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3346>

신재효는 조선후기 '인물, 사설, 득음, 너름새'라는 4대 법례를 마련한 이론가이다. 1812년(순조 12)에 태어나 1884년(고종 21)에 사망했다. 「광대가」를 지어 판소리의 이론을 수립하고 인물·사설·득음·너름새라는 4대 법례를 마련했다. 동편제와 서편제의 장점을 조화시키면서 판소리의 '듣는 측면'에다 '보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판소리를 즐기면서 동시에 이론적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판소리 여섯마당의 사설을 개작하여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게 한 결과, 판소리가 신분을 넘어선 민족문학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④ 서명응 대악후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4569>

⑤ 송만재 관우희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4953>

조선 순조 때 송만재(宋晩載)가 지은 한문시.

### 내용

그의 아들 지정(持鼎)의 등과(登科)를 축하하기 위해서 지었다. 당시의 풍속은 등과에 창우(倡優)를 불러 각종 연회를 벌이며 축하하였는데, 송만재는 가난하여 그의 아들이 급제했을 때 이렇게 못하는 서운한 마음을 달래면서, 당시 재인(才人)의 우희(優戲)를 자세히 묘사한 이 시를 지어서 대신하였다. 8백여 자의 서문과 50수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은 제1수부터 제8수까지는 광대(廣大)가 소리하기 전에 다스름, 즉 현행의 단가(短歌)에 해당하는 영산회상(靈山會相)을 부르고 구경꾼들이 조용히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제9수부터 제20수까지는 「춘향가」, 「적벽가」, 「홍보가」, 「강릉매화타령」, 「가루지기타령」(일명 변경쇠타령), 「왈자타령」(曰者打令), 「심청가」, 「배비장전」, 「옹고집전」, 「가짜신선타령」, 「별주부전」(일명 토끼타령), 「장끼전」 등의 판소리 열두마당을 노래한 내용이다.

제21수부터 제25수까지는 우스운 아니리를 섞어 가며 판소리를 하는 광대의 소리하는 모습과 그 소리를 듣고 울었다 웃었다 하는 구경꾼들을 그렸다.

제26수부터 제35수까지는 줄타는 광대가 줄 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줄타기 재주를 그린 것이고, 제36수부터 제42수까지는 땅 재주를 그렸다.

제43수부터 제50수까지는 당시 광대의 습속을 그린 것으로, 광대가 고사도 지내고, 농어촌으로 다니면서 대중을 상대로 소리를 했으며, 또한 등과한 사람에게 불리기 위하여 유식한 사람을 상대로 소리를 경쟁하였음을 알 수 있다.

	B형 6번	강의	국악완성반 Part III
		내용	3주차 골든타임 6번 문제 첨삭

#### \* <춘향가>에서 중요한 소리 대목

- (가) 적성가(진양, 우조)  
    그른 내력(중중모리, 추천목)
- (나) 천자뒹푼이(중중모리, 평조)  
    춘향 방 경치(중모리, 우조)  
    사랑가(긴사랑가: 진양, 우조) (자진사랑가: 중중모리, 추천목)
- (다) 이별가(진양, 계면조)  
    신연맞이(자진모리, 우조)  
    기생점고(진양, 중중모리, 우조, 평조)  
    군로사령(중중모리, 설령제)
- (라) 옥중가(진양, 계면조)  
    과거장(자진모리, 우조)  
    농부가(중모리, 계면조)  
    박석틱(진양, 우조)  
    어사와 장모(중중모리, 계면조, 경드름)  
    옥중상봉(중모리, 계면조)  
    어사출도(자진모리, 우조, 계면조)

기출문제	B형 7번	출제 영역	민속악
		내용	가야금 병창과 판소리 춘향가

7. (가)는 가야금 병창의 일부이고, (나)는 판소리 대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나)

<작성 방법>

- (가)의 ①에서 연주자가 공통적으로 표현해야 할 주법을 쓸 것.
- (나)의 조(調)를 쓸 것.
- (가)와 (나) 장단의 차이점을 박의 구조(○소박○박)와 '장단의 세'의 측면에서 각각 서술할 것. (단, 맺는 장단에 한정하여 서술할 것.)



7. (가)는 천자뿔풀이 대목으로, 중중모리장단이다. 춘향에게 한눈에 반한 몽룡이 춘향 생각을 지우고자 가장 쉬운 천자문을 펴서 글자 뜻풀이를 하는 대목이다. (나)는 중중모리장단, (다)는 중모리장단이며, (나)와 (다)에는 대마디대장단과 잉어걸이가 사용되었다.



B형 7번	강의	국악기본반
	내용	3주차 골든타임 5번 문제 및 첨삭

5. 다음은 다양한 판소리 마당 중 한 대목의 일부이다. 제시된 악보는 판소리 5마당 중 어디에 속하는지 기호별로 쓰고, 악보대로 부르기에 가장 적절한 장단을 각각 쓰시오.

(가)

5. (가)춘향가, 중모리장단  
장단은 박자표가 관건이죠. 지금은 기본반이니까 박자표도 친절하게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렵습니다. 한 마디에 들어가는 음표를 보고 박자표도 척척 쓸 수 있어야 합니다.



B형 7번	강의	국악완성반 Part II
	내용	개념국악 국악개론 심화편 강의교재 51~52쪽

2 중모리장단

2분박으로 된 보통 빠르기의 12박자. 첫 박은 덩, 9박을 강하게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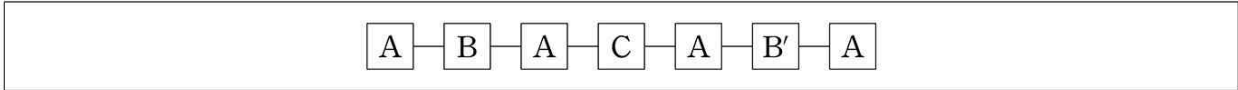
7 엇중모리장단

2분박으로 된 빠른 6박자이다. 첫 박에 덩을 크게 치며, 제5박의 덩을 강하고 크게 친다.

기출문제	B형 8번	출제 영역	형식론
		내용	론도 소나타 형식

8. (가)는 고전 시대 '론도 소나타' 형식을 나타낸 도식이고, (나)~(라)는 베토벤(L. v. Beethoven)의 '바이올린 소나타 Op. 24 제5번' 제4악장의 주요 선율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나)

(다)

(라)

<작성 방법>

- (가)의 [C]에 해당하는 선율을 (나)~(라) 중 선택하여 기호를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
- (가)의 [B']에 해당하는 조성을 쓸 것.
- (라)에 나타나는 전조 관계를 쓸 것. (예: ( )에서 ( )으로 전조)



B형 8번	강좌	서양음악 완성반 Part III
	내용	3주 론도 형식 부분

◆ 7부분 론도

- 고전 시대 “론도(Rondo)”라 이름 붙인 소품이나 소나타의 마지막 악장에 자주 사용된다.
- 7부분 론도의 전형적 형태는 리프레인 A가 원조성에서 네 번 나타나는 가운데, 사이사이 출현하는 B와 C 에피소드들은 원 조성과 다른 조성에서 나타나 조성적 대조를 이룬다. 이때 후반부에서의 에피소드 B는 원조성에서 이루어진다.

형식:	A	B	A	C	A	B	A
조성:	T	X1	T	X2	T	T	T

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Op. 13, 3악장



(중략)

◆ 소나타 론도(Sonata Rondo)

- 소나타 론도는 소나타와 론도의 중간 형태로서 7부분 론도의 변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 두 번째 에피소드인 C에 새로운 선율적 소재가 나타나지 않고 A와 B의 요소가 발전될 경우 이를 소나타 론도라 부른다. 따라서 7부분 론도에서 중간 부분이던 C는 더이상 에피소드라는 의미의 C라고 분석하지 않고 ‘발전부’라고 부른다.

기출문제	B형 9번	출제 영역	기초이론
		내용	빠르기말, 잇단음표, 지휘 도형

9. (가)는 바르토크(B. Bartók)의 '칸타타' 중 일부를 합창 수업을 위해 변형한 악보이고, (나)는 7박자 지휘 도형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 (중략) ...

(나)

①	②	③	④

<작성 방법>

- (가)에서 ㉠의 의미를 쓸 것.
- (가)의 ㉡ 길이에 해당하는 음표를 한글로 쓸 것. (예: 팔분음표)
- (가)의 ㉢ 부분을 지휘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휘 도형의 번호를 (나)에서 골라 쓰고, 그 이유를 빠르기와 박자의 분할을 고려하여 서술할 것. (단, 박자의 분할은 '○+○+...'의 형태로 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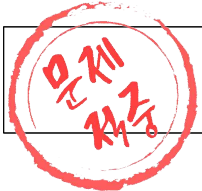
B형 9번	강좌	서양음악 기본반
	내용	3주 빠르기말 / 박자 부분

3) 빠르기말

- 절대치로서의 빠르기는 1분에 주어진 박을 몇 번 연주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 메트로놈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빠르기표에 의존했다.

8) 박자 짓기

관현악, 합창 등의 앙상블을 연주할 때 지휘자는 연주할 악곡의 해석을 통일하고 악상의 표현과 빠르기를 이끌어 간다. 이때 지휘자는 자신이 설정한 빠르기로 그 악곡의 박자표에 따른 박자 짓기를 하게 된다. 박자 짓기의 기본 원리는 중력 운동에 의하며, 박자표가 갖는 기본적인 강약의 구조에서 아래로 짓는 동작은 강박을, 수평으로 짓는 동작은 중강박을, 위로 올리는 동작은 약박을 표현한다. 당김음 등 강약의 위치가 변하는 곳에서는 통상적으로 짓는 동작의 크기로 변화를 표현한다. 검박자의 곡에서 곡의 빠르기가 빠른 곡이면 그 곡의 박자표와 관련 있는 홀박자의 박자 짓기를 사용한다.



B형 9번	강좌	서양음악 기출반 Part III
	내용	2회 예상문제 (혼합박자의 지휘 도형 연습)

9. 다음 (가)~(다)의 악보와 지휘 도형을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가)

(나)

(다)

< 작성 방법 >

- 박자의 분류에 따라 (가)~(다)의 박자를 각각 '○○박자'의 형식으로 쓸 것.
- (가)~(다)의 지휘 도형은 어떤 면에서 적절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각각 서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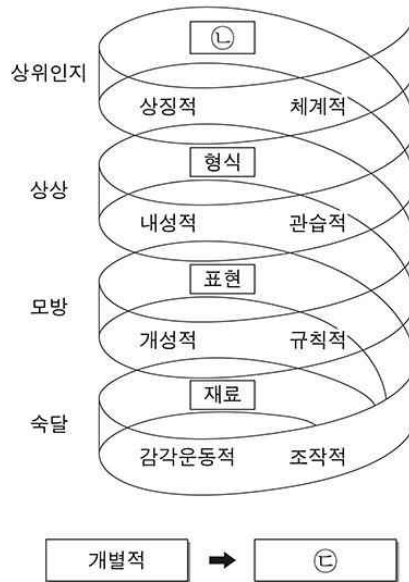
기출문제	B형 10번	출제 영역	음악교육심리
		내용	스완윅과 틸만의 음악능력발달 단계

10. (가)는 스완윅과 틸만(Swanwick & Tillman)의 음악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음악 발달 단계 모형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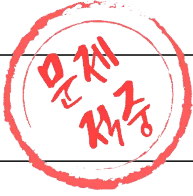
음악 능력은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달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스완윅과 틸만은 어린이들의 (㉠)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나)와 같은 음악 발달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는 경험과 학습의 연속선상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4개의 단계와 이에 속한 2개의 하위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 발달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음악의 핵심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나선형 구조이다. 스완윅과 틸만의 음악 발달 단계는 피아제(J. Piaget)의 연령에 따른 인지발달 단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연령과 관계없이 음악의 초보자가 전문가로 발전하는 과정의 이론적 모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나)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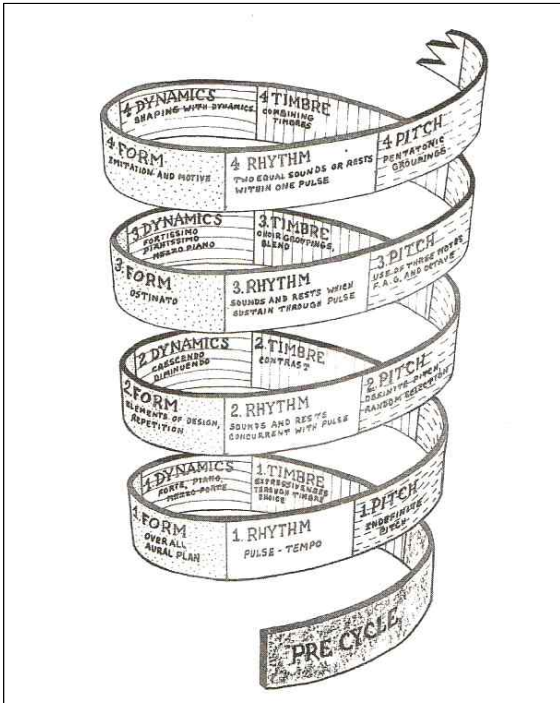
- (가)의 ㉠에 해당하는 음악 영역을 쓸 것.
- (나)의 ㉠에 해당하는 개념을 쓸 것.
- (나)의 ㉠에 해당하는 용어(개념)를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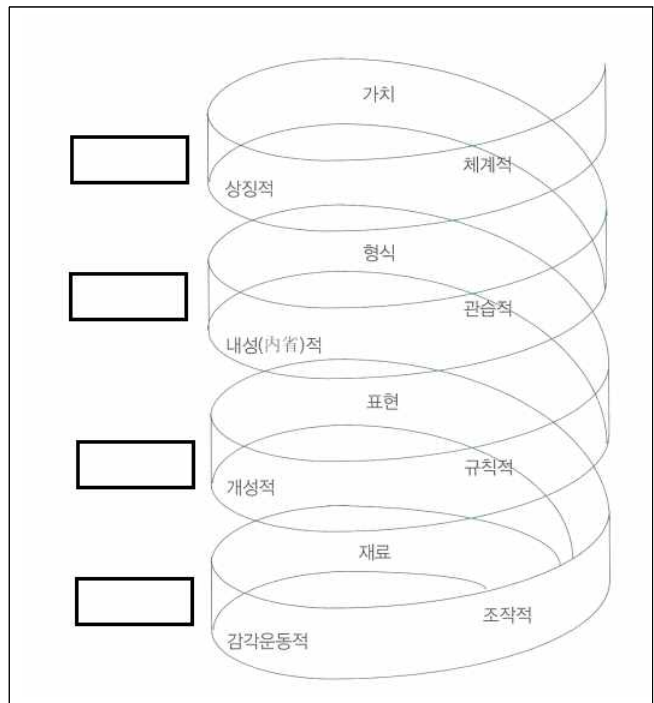
B형 10번	강의	음교기출반 Part II
	내용	3주차 예상문제 8번 문제와 첨삭

8. 다음은 음악교육에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을 도표화 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가)



(나)



<작성 방법>

- (가)와 (나)에 알맞은 제목을 쓰고, 관련된 인물을 기호별로 각각 쓸 것.
- (가)의 요소 5가지를 쓰고, 2022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음악 요소'와 비교할 것.
- (나)의 빈 칸에 들어갈 단계 4가지를 위에서 아래 순서로 나열하고, 단계별 연령을 명시할 것.

8. (가)나선형교육과정, (나)음악능력 발달 단계이며, (가)브루너, (나)스완윅과 틸만이다. 음고, 리듬, 형식, 셈여림, 음색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수업 내용이 점차 심화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2022개정 교육과정의 음악 요소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7가지이다. (나)의 위에서부터 상위인지(15세 이상), 상상(9~15세), 모방(4~9세), 숙달(0~4세)이다.

둘 다 스프링이라 묶어봤습니다. (가)는 MMCP에서 활용된 개념학습의 나선형 교육과정 모형이에요.

PITCH, RHYTHM, FORM, DYNAMICS, TIMBRE 5가지 개념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스완윅&틸만의 음악능력 발달 단계 모형. 음악발달 단계 모형.



B형 10번	강의	음교총총반
	내용	1주차 교육과정과 심리학

- 스와닉과 틸만은 음악 능력의 발달 단계를 연령에 따라서 숙달기(mastery, 0세~4세) - 모방기(imitation, 4~9세) - 상상기(imaginative play, 10~15세) - 메타인지기(meta-cognition, 15세~)의 4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두 가지 성격의 음악 경험에 중점을 두어, 실제로는 총 8단계가 되는 음악 능력의 발달 수준을 나선형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짐머만&피아제	하그리브스	스완윅&틸만
형식적 조작기(11세~ ) 구체적 조작기(7~11세) 전 조작기(2~7세) 감각운동기(0~2세)	전문적 단계(15세~ ) 체계적 단계(8~15세) 도식적 단계(5~8세) 형상적 단계(2~5세) 감각운동적 단계(0~2세)	메타인지(15세~ , 상징-체계) 상상놀이(10~15세, 사변-관용) 모방(4~9세, 개인-토착) 숙달(0~4세, 감각-조작)

\* 스완윅과 틸만(K. Swanwick & J. Tillman)의 음악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나)와 (다)는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 기호별로 각각 쓰시오.

(나)

어떤 사람은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상징적 모드에서 음악가는 음악에서 언어와 같은 정서적 기능을 인식하게 된다. 음악의 짜임새나 화성 진행과 같은 더 큰 구성적 특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체계적 모드에서 높은 수준의 음악가는 혁신적이거나 정교한 방식으로 음악에 접근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새로운 작곡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다양한 지적 관점에서 음악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

사변적 모드에서 아이들은 이전 모드에서 발견된 음악적 관습에서 벗어나는 데 점점 더 관심을 보인다. 그들은 패턴을 다양화하고 음악에 대비를 추가하는 방법을 실험하지만, 종종 더 큰 구조적 응집력을 희생한다. 관용적 모드에서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디어를 보다 관용적이고 알아볼 수 있는 스타일로 더 잘 통합할 수 있다. 기술적, 표현적, 구조적 제어와 마찬가지로 음악적 진정성이 매우 중요해진다. 기존의 음악 스타일을 모방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

(나)상위인지 또는 메타인지

(다) 상상기 또는 상상놀이

기출문제	B형 11번	출제 영역	음악교육철학
		내용	엘리엇의 실천주의

11. (가)는 엘리엇(D. Elliott)의 실천주의 음악교육 철학(philosophy of praxial music education)에서의 음악적 실천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음악 산출물의 차원 중 하나에 근거한 음악 수업 계획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엘리엇은 음악적 실천의 요소를 사람들, 음악적 과정, 음악적 산출물, 맥락의 4가지로 설명하였다. 그는 투리노(T. Turino)의 음악 분류를 받아들여, 음악에 ㉠ 참여적 연주, 보여 주는 연주, 실황 녹음, 스튜디오 오디오 예술을 포함시켰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 보았다. 또한, 고정되어 있는 결과물이 아닌, 특정 맥락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process)과 산출물(produc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음악적 산출물(musical produ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엘리엇은 9가지 음악 산출물의 차원을 제시하였으며, 이 개념들은 모든 형태의 ‘음악하기’와 ‘㉡’을/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교수·학습을 계획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나를 나타내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수업

- 주제: 나를 나타내는 음악
- 수업 의도: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던 음악을 떠올리며, 음악의 개인적인 의미를 탐색한다. 이는 삶의 여정의 지표가 되고,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 될 수 있다.
- 수업 활동
  1. 자신의 인생의 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2. 장면에서 회상할 수 있는 음악 떠올리기
  3. 음악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쓰기
  4. 결과물 발표하고 공유하기

예시)

장면	음악	장르
• 운동 경기 응원	오! 필승 코리아	대중음악
• 어린 시절 잠들기 전	자장가	가곡
• 해외 가족여행	오 솔레미오	칸초네
• 입학식	출발	대중음악
• 민속촌 체험학습	창부타령	민요

<작성 방법>

- (가)의 ㉠에 해당하는 의미를 쓸 것.
- (가)의 ㉡에 해당하는 음악 활동을 쓸 것.
- (나) 수업에 나타나는 음악적 산출물의 차원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



B형 11번	강의	전공모고반
	내용	8회 모의고사 전공 B형 11번 문제 및 채점기준

11. (가)~(다)는 현대음악교육철학에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이 사고와 지식은 감각적이며, 즉흥적 또는 즉시적인 사고와 지식이다. 그는 이것을 ㉠(knowledgeable feeling)이라고도 불렀다. 연주자들은 흔히,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감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그들은 자주 '감을 잡았어'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사고와 지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악 행위 속에서 모니터하고, 조정하며, 균형을 잡고, 관리하며, 감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신의 음악하거나 음악듣기, 또는 자신의 다양한 음악적 사고와 지식들에 대하여 스스로 관찰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며, 전체의 방향이나 균형을 잡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어진 맥락 속에서 음악하기와 음악듣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생각하고 협력하는 사람이다.

(나)

음악 작품이라는 단어가 고정된 객체 또는 심미적 감상 대상으로서의 예술품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고정되어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음악하기와 음악듣기의 활동과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을 의미한다. ㉢에는 9가지 차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차원들에 대한 이해는, 음악하기와 음악듣기를 위한 교수·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다)


음악이 지닌 문화적·역사적 맥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문화적 구조물로서의 음악은 인간 의식의 형성에 기여한다. 즉, 문화적 경험은 인간 의식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화의 뿌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의 역할은 보다 더 강조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음악교육은 음악을 보편적인 문화와 특수적인 문화를 통합적이며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한다.

< 작성 방법 >

- (가)에서 언급한 사고와 지식 유형 2가지를 쓰고, ㉠에 알맞은 말을 '□□적인 □□'의 형태로 쓸 것.
- (가)의 ㉠과 관련된 2022개정 음악과 역량을 2가지로 쓸 것.
- (나)의 ㉢에 알맞은 말을 '▣▣적 ▣▣'의 형태로 쓰고, 전통이 새로운 ▣▣▣인 이유를 쓸 것.
- (다)에서 설명하는 음악 경험의 차원을 쓰고, (다)에 추가되어야 할 음악 경험의 차원을 모두 쓸 것.

11. (가)는 직관적 사고와 지식, 통제적 사고와 지식이다. ㉠은 지식적인 느낌이고, ㉡에 관련된 역량은 공동체 역량과 소통 역량이다. (나)의 ㉢은 음악적 산출물이다. 전통이 새로운 산출물인 이유는 전통을 수행하거나, 다른 전통을 융합하거나, 또는 완전히 새로운 전통을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는 맥락의 차원이며, 느낌, 창의, 의미의 차원이 있다.

- (가)직관적 사고와 지식, 통제적 사고와 지식 / ㉠지식적인 느낌 1점
- ㉡공동체 역량, 소통 역량 1점
- ㉢음악적 산출물 / 전통은 수행, 융합,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1점
- (다)맥락의 차원 / 느낌(감성)의 차원, 창의(창작)의 차원, 의미의 차원 1점



B형 11번	강의	음교총총반
	내용	3주차 흑시나 음교

**\* 엘리트의 음악적 산출물의 9가지 차원**

엘리트는 음악 작품(musical work)이라는 단어가, 고정된 객체, 또는 심미적 감상 대상으로서의 예술품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음악적 산출물’(musical produ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고정되어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음악하기와 음악듣기의 활동과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즉 어떤 특성의 음악적 맥락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process)과 산출물(product)이 통합된 개념으로서의 음악적 산출물을 의미한다. 음악적 산출물에는 9가지 차원(dimension)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음악적 산출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차원들이 상호 작용하고 결합해야 한다. 음악적 산출물에 대한 다양한 차원들에 대한 이해는, 음악하기와 음악듣기를 위한 교수-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 1) 연주-해석의 차원: 연주자는 악보에 적힌 대로, 복사하듯이 연주하지는 않는다.
- 2) 음악적 디자인 차원: 선율, 화성, 리듬 등의 구문적 특질과 음색,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셈여림 등의 비구문적 특질로 구분됨.
- 3) 실천 특정적 음악의 속성: 음악적 산출물은 그 산출물이 속한 특정 공동체의 맥락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특성의 음악 요소들에 관련되어 있다. 이는 가사가 있는 성악곡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 4) 음악적 표현의 차원: 음악을 통해서도 정서를 표현하는 전통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다. 문화 특정적 음악적 이해를 통해 음악행자와 음악청자가 기악을 통해서도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 5) 음악 표상의 차원: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어떤 측면을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있음.
- 6) 문화-이념의 차원: 음악적 산출물은 문화-이념을 반영한다.
- 7) 서사적 차원: 음악은 최초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음악적 산출물은 인간의 삶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사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
- 8) 자전적 차원: 잊을 수 없는 음악하기와 음악듣기는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표석이 됨.**
- 9) 윤리적 차원: 음악적 산출물은 올바르고, 선하며,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